

## 6.25전쟁 연구동향과 전망

- 전쟁해석을 둘러싼 관념충돌을 중심으로 -

김명섭\*

1. 서론
2. 공산주의적 해석의 유포와 지속
3. 반공주의적 해석의 기여와 한계
4. 반-반공주의적 해석의 도전과 역편향
5. 결론: 정치적 양가주망에서 학문적 데가주망으로

### 1. 서론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었던 존슨(Hiram Johnson, 1866-1945)은 “전쟁에서 최초의 사상자는 진실(The first casualty, when war comes, is truth)”이라고 말했다. 동양에서는 더 오래 전에 한비자(韓非子, 서기전 약 280~233)가 “전쟁에 임해서는 속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戰陣之間, 不厭詐偽)”라는 말을 남겼다. 전쟁 시작과 동시에 전승(戰勝)을 위한 기만은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장되었기 때문에 전쟁사를 쓸 때는 교전 쌍방의 자료들과 선행연구들을 균형있게 대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sup>1)</sup>

6.25전쟁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전통주의(traditionalism) 대 수정주의(revisionism)’라는 미국 냉전학계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 
- 1) 6.25전쟁 연구동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국내외에서 많이 출간되었다. 1986년 맥팔랜드는 6.25전쟁에 관한 문헌해제집을 출간한 이후, 2010년 이를 수정, 보완했다. Keith D. McFarland, *The Korean War: An Annotated Bibliography*.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0). 또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서울: 博英社, 1989, 2003, 2010); Paul M. Edwards, comp., *The Pusan Perimeter, Korea, 1950: An Annotated Bibliography* (Westport, CT: Greenwood[Bibliographies of Battles and Leaders, no.11], 1993); Paul M. Edwards, comp., *The Inchon Landing, Korea, 1950: An Annotated Bibliography* (Westport: Greenwood, 1994). 폴 에드워즈는 6.25전쟁 관련 영화들에 대한 가이드를 집필하기도 했다. Paul M. Edwards, *A Guide to Films on the Korean War* (Westport: Greenwood Press, 1997). 이 밖에도 Lester H. Brune, ed., *The Korean War: Handbook of the Literature and Research* (Westport: Greenwood Press, 1996); 김홍영, 심현용 외,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러시아연방 국방부 군사사연구소, 2009); 이완범, 「6.25전쟁 연구의 국내적 신경향」, 『군사』 제71호 (2009년 6월); Allan R. Millet, *The War for Korea, 1950-1951: They Came from the North*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577-610; 박명림,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서울: 나남, 2011); 손경호, 「최근 한국전쟁 연구동향: 2005년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6집 (2011), 202-26 등의 연구동향 분석들이 있다. 필자 역시 6.25전쟁 연구동향을 정리해왔다. 김명섭, 「냉전의 종식과 연구의 열전」,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김명섭, 「한국전쟁연구를 위한 다국사료교차분석법과 그 국내적 기반」,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2호 (2000년 여름), 3-17쪽; 김명섭, 「역사로서의 6.25전쟁 연구: 성찰과 모색」,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및 한국전쟁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발표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2011년 6월 21일);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70-103쪽. 한국 국방부는 6.25전쟁 정전 50주년이 되는 2003년부터 공간사적 의미를 갖는 『6.25전쟁사』 편찬을 시작, 정전 60주년이자 사업 착수 10년 만인 2013년 제11권을 집대성했는데, 이 책에는 광범위한 연구동향이 망라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2013).

범주화(categorization)가 많이 차용되어 왔다.<sup>2)</sup> 전통주의는 기본적으로 냉전의 책임을 소련에게 돌리는 입장인데 비해 수정주의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오히려 제국주의적이며 팽창주의적이라는 주장”이라고 소개되었다.<sup>3)</sup> 이처럼 냉전이 언제 어느 쪽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논쟁의 연장선 위에서 6.25전쟁의 기원에 관한 연구동향이 분석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냉전학계의 범주화를 한국학계에 소개했던 학자도 2003년 개정판과 2010년 개정판에서 이러한 “명명은 지난날에 비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 전통주의-신전통주의와 수정주의-신수정주의라는 구분마저 무의미해져 간다”고 보았다.<sup>4)</sup> 공간적으로도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온 6.25전쟁 연구동향을 포괄적으로 성찰해 보는데 있어서 이러한 구분법에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6.25전쟁을 치렀던 교전 쌍방 중 일방에서 발전해온 연구들만을 놓고 전통주의, 수정주의, 그리고 후기수정주의 등으로 범주화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교전 쌍방을 포괄하는 관념층들의 차원에서

2) J. Samuel Walker, “Historians and Cold War Origins,” in Gerald K. Haines and J. Samuel Walker, eds., *American Foreign Relations: A Historiographical Review* (Westport: Greenwood, 1981), pp. 207-236; 하영선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서울: 나남, 1990); Michael J. Hogan, ed., *America in the World: The Historiograph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since 19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전통주의의 대 수정주의라는 범주화를 적용하여 6.25전쟁 관련 연구동향을 정리, 분석한 선행연구들로는 김학준, 『6·25 연구의 국제적 동향: 6·25 연구에 관한 문헌사적 고찰』, 김철범 편, 『한국 전쟁을 보는 시각』(서울: 을유문화사, 1990), 9-52쪽; 유영익 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Myongsob Kim, “Reexamining Cold War History and the Korean Question,” *Korea Journal*, vol. 41 no. 2 (Summer 2001), pp.5-27.

3)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서울: 博英社, 1989), 57-58쪽.

4)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2003), 102-103쪽;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2010), 102-103쪽.

이루어지는 전쟁해석의 상이성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공산주의에 입각한 6.25전쟁 해석의 등장과 유포, 그리고 현재적 지속에 관해 고찰한다. 둘째, 공산주의에 맞섰던 반공주의적 관념이 6.25전쟁 연구에 어떻게 기여했고,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한다. 셋째, 반공주의에 맞서서 등장한 반-반공주의적 관념의 기여와 한계에 관해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서 향후 6.25전쟁 연구의 방향을 간략히 전망한다.

## 2. 공산주의적 해석의 유포와 지속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실시되고 있던 서울시각으로 오전 5시, 평양시각으로 오전 4시에 시작되었다. 같은 날 평양시각 오전 10시(서울시각 오전 11시) 평양라디오는 “남조선의 공격을 북조선 인민군이 격퇴했으며, 남조선이 군사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조선은 단호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방송했다.<sup>5)</sup> 개전 직후부터 6.25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해석이 유포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해석은 평양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50년 6월 26일 방송에서는 김일성이 직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명의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리승만역도들은 동족살육전쟁을 통하여 남반부에 존재하고 있는 일제시대와 다름없는 반인민적 반동 통치제도를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실시하려 하며 우리

5) 미 태평양군 문서군, 국립중앙도서관, 『NARA기록으로 보는 6.25』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0). 1950년 6월 18일 김일성은 소련에게 라디오방송국 방송기자재를 급히 요청했다. “1950년 6월 18일 평양 주재 소련 대사 쉬프코프가 외무성 극동1과장 임시 직무대리 꾸르뒤코프에게 보낸 문서,” 박중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집』 (서울: 선인, 2010), I: 453쪽.

인민들이 쟁취한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승만 반동도배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의한 토지개혁의 결과로 토지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에게서 토지를 빼앗아서 다시 지주들에게 돌려 주려하며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모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려 합니다. 이승만 역도들은 우리 조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며 조선인민을 미제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원문 그대로]<sup>6)</sup>

종교적 미신을 타파한다고 했지만 공산주의를 종교적으로 신봉했던 김일성이 6.25전쟁을 한국(대한민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현재까지도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그런 주장이 계승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만 혹은 프로파간다 이상의 관념적 연속성을 지닌 것이다.<sup>7)</sup> 6.25전쟁이 평양의 방어전이였다는 담론에는 공산주의적 관념이 함축되어 있었다. 그러한 관념에 입각해서 김일성은 6.25전쟁을 “미 제국주의자”와 “일본 제국주의자”의 도발에 맞선 “정의의 전쟁”으로 규정했고, 전쟁의 형식을 ‘방어전’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레닌은 1916년에 집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강령” 중 “계급투쟁을 인정하는 자는 내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내전을 “정의”의 전쟁이며 “방위전쟁”이라고 부른 바 있었다.<sup>8)</sup>

김일성의 전쟁관은 전쟁의 불가피성은 물론 국제자본주의에 맞서는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레닌과 스탈린의 전쟁관을 계승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6.25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 12월 24일, 인민군 고급군관회의에서 행한 ‘인민군대를 강화하자’라는 연설에서도 “레닌의 교시는 인민군을 건설함에 있어서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실제적

6) “전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장군의 방송연설,” 『조선중앙년감, 1951-52』, 13-15쪽.

7)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했던 공산주의는 역설적으로 피압박민족과 민중의 아편이 되었다. 전쟁의 배후에 존재하는 관념충돌에 관해서는 김명섭, 김석원, 「관념충돌로서의 전쟁: 임진왜란과 6.25전쟁의 관념적 기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2013), 103-146쪽.

8) 레닌, “프롤레타리아의 군사강령,” 『사회주의와 전쟁 외』, 125, 127-128쪽.

사업의 토대”라고 역설했다.<sup>9)</sup>

남조선로동당을 이끌다가 평양정권에 참여하여 부수상 겸 외무상이 된 박헌영도 1950년 7월 1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원조와 약속을 받고 리승만 정부는 자기의 미국상전의 지시에 의하여 6월 25일 조선에서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했다.”<sup>10)</sup> 박헌영은 서울이 국제연합군에 의해 수복되던 1950년 9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미제국주의자들 및 그들의 앞잡이 리승만 도배들에 의하여 조선에서 도발된 전쟁이 우리 인민에게 가져온 해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난에 대한 전적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 [중략] 노예와 같이 충실하게 미국 상전의 지시에 따라 리승만 정부는 자기가 一九五〇年 六月 二十五일에 개시한 북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의 준비 사업에 자기의 전 활동을 복종시켰다.<sup>11)</sup>

중국공산당의 『인민일보』도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조선인민은 범죄적으로 진격한 자들을 격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이승만 위군(僞軍)의 대규모 군사공격을 반격하여 격퇴”했다는 6.25북침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sup>12)</sup> 마오쩌둥은 1950년 6월 28일 연설에서 “중국 인민의 동정심과 전 세계 인민의 동정심은 모두 침략을 받고 있는 자를 응원하는 방면에 설 것이지 결코 미 제국주의 방면에 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응원했다.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킨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전쟁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했다.<sup>13)</sup>

9) 김일성, “인민군대를 강화하자(1952. 12. 24),” 『김일성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346쪽.

10) 『로동신문』 1950년 7월 2일.

11) 『로동신문』 1950년 9월 29일.

12) “朝鮮人民爲擊退進犯者而奮鬪,” 『人民日報』, 1950년 6월 27일. 여기서 위군(僞軍)은 한국군에 대한 중국공산당 식의 명명으로서, 이는 중국공산당이 만주국 군대를 지칭하던 용어이기도 했다.

13) “毛澤東主席在中央人民政府委員會第八次會議上關於美國侵略臺灣和朝鮮的講

소련공산당(현재 러시아공산당)은 이러한 허위사실들을 ‘학문’적으로 포장하여 동유럽 공산진영을 비롯한 전 세계에 유포했다. 1951년 발간된 크랍초프의 『1945-1951년 미제국주의의 조선침략』, 1951년 발간된 미하일 박의 『미국의 조선침략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등이 이러한 공산주의적 관념에 입각해서 출간되었다.<sup>14)</sup> 많은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공산주의적 해석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 간의 수교가 이루어질 무렵까지도 꾸준히 지속되었다.<sup>15)</sup>

이러한 소련공산당의 6.25전쟁 해석을 세계 지성계에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은 프랑스의 저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였다. 그는 소련-프랑스 협회(Association France-URSS) 회장을 맡아 평화운동에 앞장서면서 1952년 소련의 입장을 대변했던 ‘세계평화평의회’(Conseil mondial de la paix; World Peace Council)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창간을 주도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잡지 『현대(Les Temps modernes)』의 1952년 7월호에 “공산주의자들과 평화(les Communistes et la paix)”라는 논설을 발표했다.<sup>16)</sup> 동지이자 친구였던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게재한 이 논설에서 사르트르는 “반공주의

和-節錄,” 1950년 6월 28일.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韓國戰爭과 中國』(2002), I: 7쪽.

14) 이재훈, 「러시아의 한국전쟁 연구동향」, 『군사』제55호(2005), 143-144쪽; 보다 최근의 주요한 연구성과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러시아연방 국방부 군사사연구소,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15) 예외적으로 유고슬라비아 학자들 중에는 6.25남침론을 인정한 학자들도 있었다. 김철민, 『한국전쟁과 동유럽: 유고슬라비아는 왜 남침설을 지지했는가?』(서울: 아카넷, 2008), 323-329쪽.

16) Jean-Paul Sartre, “les Communistes et la paix,” *Les Temps modernes* (juillet 1952).

자는 개”(Un anticommuniste est un chien)라고 주장하며, 공산주의자들의 길동무(compagnon de route)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프랑스 지성계에서는 사르트르의 친구였던 레이몽 아롱이 사르트르의 반대편에서 공산주의를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규정했다.<sup>17)</sup> 그러나 많은 프랑스인들, 특히 청년들은 “레이몽 아롱과 더불어 이성을 갖는 것보다 사르트르와 더불어 속는 것이 낫다”(Il vaut mieux s'être trompé avec Sartre que d'avoir eu raison avec Raymond Aron)는 식으로 ‘지식인의 아편’에 취해 있었다.<sup>18)</sup> 서유럽의 지성계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은 1956년 헝가리민주화운동, 1968년 프라하의 봄, 1973년 서구에서 출간된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의 『수용소 군도』, 베트남공산화 이후의 보트피플 참상, 그리고 1979년 중국공산당이 시작한 제3차 베트남 전쟁을 경험하면서 점차 약화되었지만, 끈질기게 지속되었다.

왜 사르트르와 같은 저명한 철학자가 6.25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해석을 추종하고 인증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유럽 지성계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약 2천 4백만 명으로 집계된 군인 사망자를 포함하여 약 5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스탈린과 히틀러 중 누가 더 나쁜가?”라는 질문이 서구지식인들에게 던져졌었고, 많은 지식인들은 스탈린보다 히틀러를 선오(選惡)했다. 종전 이후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은 광폭한 히틀러의 우익전체주의와 맞서 승리한 공산주의자 스탈린에게 환호했다. 유럽의 지식인들이 그러한 환호를 넘어 스탈린이 추종했던 공산주의의 좌익전체주의적 속성을

17) Raymond Aron, *L'opium des intellectuels* (Paris: Calmann-Lévy, 1955).

18) Michel Winock, "Sartre s'est-il toujours trompé?," *L'Histoire*, no. 295 (février 2005), pp.34-45.



직시하는 데는 ‘환호의 종전’ 이후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즈음하여 소련이 승전국으로 부상하고, 반공주의를 하나의 구성요소로 삼았던 파시즘이 몰락하면서,<sup>19)</sup> 서구의 지식인들, 특히 유대계 지식인들 사이에서 스탈린은 ‘악마적 히틀러로부터 구원한 해방자’로 비쳐졌다. 스탈린의 소련이 히틀러의 독일과 맞서는 과정에서 군인 약 1천만명, 민간인 약 7백만명이 사망했다. 소련의 희생은 제2차 세계대전 전 기간을 통해 미국이 치른 희생(군인 약 40만명, 민간인 약 6천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동유럽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스탈린은 히틀러라는 괴물을 무찌른 영웅(큰 뱀을 베는 게오르기, St. George slaying the dragon)처럼 숭배되었다. 특히, 유대인들을 대량학살했던 히틀러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스탈린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프랑스 지성계의 일각에서 무비판적 환대를 받았다. 이 점에서 유대인이었던 레이몽 아롱은 매우 예외적인 존재였다. 그는 종교를 아편처럼 취급했던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이 정작 공산주의라는 아편에 빠져 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sup>20)</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식민지 경험에서 벗어난 지역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도 공산주의적 역사해석은 매력적이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지식인들에게 영-미 진영과 싸우고 있던 공산진영의 선전은 좀 더 쉽게 확산되었다. 인도의 굽타(Karunakar Gupta)는 공산진영의 주장대로 한국군이 먼저 북침함으로써 6.25전쟁이 일어났다

19) 1917년 볼셰비키정변이후 공산주의의 출현과 유럽 파시즘 출현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François Furet and Ernst Nolte, *Fascism & Communism*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4).

20) Raymond Aron, *L'Opium des intellectuels* (Paris: Calman-Lévy, 1955). 1997년 프랑스 좌파지식인들이 주도한 『공산주의흑서』의 발간은 지성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Stéphane Courtois, Nicolas Werth, Jean-Louis Panné, Andrzej Paczkowski, Karel Bartosek, Jean-Louis Margolin, *Le Livre noir du communisme: crimes, terreur, répression* (Paris: Robert Laffont, 1997).

는 북침론을 제기한 논문을 *China Quarterly*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지속적 영향(impact)을 미쳤다.<sup>21)</sup>

6.25전쟁 직후부터 이 전쟁이 “미제와 이승만 괴뢰도당”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주장해온 평양의 선전과 왜곡은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교과서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6.25전쟁에 대한 선전과 왜곡이 반일에서 반미로 이어지는 조선민족주의를 강화시킴으로써 평양의 지배체제를 지탱해주고 있다. 평양에서 발간된 중학교 교과서는 “미제는 면밀한 계획과 준비에 기초하여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고 교육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허위주장을 담은 영문서적도 출간되어 세계적으로 배포되었다.<sup>23)</sup> 6.25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해석과 선전에 앞장서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역사서술체계를 수립하여 조선력사학회장이 된 허종호(許宗浩)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북측 위원장(남측 위원장은 강만길)을 맡아서 한국의 국사학계와 활발히 교류했다.<sup>24)</sup>

21) K. Gupta, “How did the Korean War Begin?” *China Quarterly* (October/December 1972); Gupta’s critics in *China Quarterly*, no. 54 (1973), with Gupta’s reply; K. 굽타 외, 『한국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서울: 신학문사, 1988).

22)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 1930-1990년대: 중학교 6』(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주체92[2003]). 인쇄 및 발행 주체91[2002], 19쪽.

23) *Facts Tell*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60); Ho, Jong Ho(허종호) et al., *The U.S. Imperialists Started the Korean War* (Pyongyang: Foreign Language Press, 1977, 1993); 許宗浩, 姜錫熙, 朴泰鎬, 『美帝國主義是發動朝鮮戰爭的罪魁禍首』(平壤: 外文出版社, 1993); 허종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1983); 허종호, 전영률, 강근조, 이정인, 리준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이 책은 1편 10쪽 서두에서 “조선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었다.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고 주장한다. 같은 책 10쪽과 88쪽에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이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시작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었다는 허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통제 하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교과서들은 과거 6.25북침론을 주장하다가 점차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이 폭발했다”(朝鮮战争爆发)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오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조선전쟁”과 1950년 10월부터 시작된 “항미원조전쟁”을 구분한다. 여전히 중국공산당은 전자를 조선인들 간의 내전으로 해석하고 있고, 후자를 “조선내전이 발발한 후 미국 트루먼정부가 거리낌 없이 파병해 무장 간섭을 진행하고 조선에 대해 전면전을 발동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넘은” 이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으로서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의 단결로 위대한 승리를 이끈” 전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sup>25)</sup>

약 8천만명 이상의 당원,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国共产主义青年团)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약 13억 이상의 인구가 가져야 할 역사관을 정해주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비록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공산당과는 다른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만 6.25전쟁 해석에 있어서는 당의 정체성과 위배되는 해석이나 사료공개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sup>26)</sup>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보여진다.<sup>27)</sup>

24)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강만길, 『강만길 자서전: 역사가의 시간』(서울: 창비, 2010).

25) 2010년 10월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 개전 60주년 좌담회에서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習近平)의 이러한 발언이 논란을 빚자 3일 후인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이러한 해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론(定論)”이라고 재확인했다. 『조선일보』, 2010년 10월 29일.

26) 쉬쩌룽(徐澤榮, Xu Zerong)은 1998년 옥스퍼드대학에서 6.25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열람금지된 자료들을 복사하여 유출한 것이 “심각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의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1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1년 6월 석방되었다. 데이빗 쉰이(徐澤榮), 『中國의 6.25戰爭 參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Chak Wing David Tsui,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Oxford: University of Oxford, 1998).

### 3. 반공주의적 해석의 기여와 한계

6.25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해석의 반대편에서 반공주의적 해석이 발전해왔다. 자유민주주의에 비해서 반공주의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는 소극적 방어형의 사유체계이다. 공산주의적 도그마가 6.25전쟁 자체를 정의의 전쟁, 반침략전쟁으로 몰고 갔다면, 반공주의적 해석은 자유민주주의적 성숙도가 낮았던 시기에 이러한 허위날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6.25전쟁이 “미제와 이승만 도당에 의한 북침”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진실을 고수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반공주의적 해석은 소극적 방어형의 사유체계에 머물면서 자유로운 학문적 탐구를 경시하거나 오히려 억압함으로써 이후 등장하는 반-반공주의적 해석에 학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1977년 한국에서 반공교육에 투신하고 있던 교수는 반공교육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반공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와 ‘부정’으로 일관하는, 구호와 성토 위주의 교육이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감정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철저히 미워하고 배격하면서도,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하는가 하는 극히 초보적인 물음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sup>27)</sup>

27) 저우언라이 등이 파병을 반대할 때, 대만과 ‘조선반도’ 양쪽에서 위협을 받는 지정학적 상황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마오쩌둥의 파병 결정을 옹호했고,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으로서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평덕화이(彭德懷, 1898 - 1974)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10대 장군들 중 한 명으로 기념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부친 시중선(習仲勳)은 국공내전 기간 중 평덕화이를 도와 시베이(西北)에서 국민당 군대에 대승했다. 이후 동북변방군사령관(東北邊防軍司令官) 가오강(高崗)이 동북왕(東北王)이 되었다면, 시중선은 서북왕(西北王)이 되었다. 우밍, 송삼현 옮김, 『시진핑평전』(서울: 넥서스, 2009), 24쪽.

28) 윤원규, 『공산주의의 본질』(서울: 건국이념보급회 출판부, 2014[1977]), 12-13쪽.

이처럼 “반대와 부정으로 일관하는, 구호와 성토 위주의 교육”은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6.25 전쟁에 대한 학문적 규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했다. 즉, ‘반공’이 하나의 주의(主義, 도그마)로 굳어져서 전수되었을 뿐 왜 ‘반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사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유럽의 사회당들이 왜 ‘반공좌파’의 노선을 걸었던가 등에 대한 사유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공산주의적 해석이 만연하던 시절 반공주의적 해석은 그러한 해석의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기도 했다.

첫째,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존재했던 좌우대립과 38선 상의 무장충돌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었다. 1967년에 간행된 『한국전쟁사』 1권 『해방과 건군』에서 다루어진 1949년 38선 인근 무장충돌에 대한 내용이 1977년 개정판 제1권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1950.6.25. - 1950.7.4.)에서는 삭제된 것이 한 예이다.<sup>29)</sup>

‘반공’ 자체를 목적시하는 반공주의적 관점에서는 6.25전쟁 이전 좌우대립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모두 공산주의자 내지 친공산주의자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제주 4.3사건은 남조선로동당이 폭력투쟁 노선을 채택하여 전개된 5.10총선거 반대투쟁으로 시작되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양민희생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해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고한 희생자들이나 그 유족들이 무분별하게 공산주의자들로 취급되면서 연좌제 등에 의한 이중적 피해를 입었다.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4.3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이 구성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 해방과 건군 (19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개정판) (1977).

되었다.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덕구가 소지하고 있던 “제주도 인민 유격대 투쟁보고서”를 비롯한 제주 4.3사건 관련 자료들을 취합한 임시 자료집 12권이 편찬되었고,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 채택되었다.<sup>30)</sup>

제주 4.3사건에 관해서는 이후 새로운 증언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sup>31)</sup> 최근에는 당시 남조선로동당 당원으로 활동했고, 일본으로 밀항하여 1950년 일본공산당에 입당했던 김시중의 기록이 발간되었다. 남조선노동당원으로서 4.3사건의 초기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김시중은 5.10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한 “투표의 거부의 증거로서 마을사람들을 대거 입산시켰”던 남조선노동당의 전술이 “4.3의 비극을 참극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sup>32)</sup>

둘째, 6.25전쟁을 주도했던 김일성이 광복 이전 항일무장투쟁에 종사했던 사실이 은폐되는 경향이 있었다. 1974년 출간된 이명영의 ‘가짜 김일성’론은 대한민국의 유력한 김일성담론으로 자리잡았었다.<sup>33)</sup> ‘가짜 김일성’론은 1948년 평양에서 집권한 김일성(金日成)의 본명이 김성주(金聖柱 또는 金成柱)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만주(滿洲)의 무질서한 상황에서 변명(變名)하는 경우는 많았고, 김

30) 반공주의에 의해 가려진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해원의 문제가 부각된 나머지 역사적 규명에는 소홀했다는 작성참여자의 증언에 관해서는 나중삼,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을 돌이켜 보면서』, 현길언, 『정치권력과 역사왜곡』 (서울: 태학사, 2016), 507-524쪽.

31) 김광동 외, 『제주 4.3사건의 본질과 「제주 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문제점 연구』 (서울: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2009); 김영중, 『남로당제주도당 지령서 분석: 1947년 3.1운동 기념투쟁 당시』 (서울: 삼성인터컴, 2014).

32) 김시중, 『조선과 일본에 살다』 (서울: 돌베개, 2016), 194쪽.

33) 李命英, 『金日成列傳: 그 傳說과 神話의 真相糾明을 위한 研究』 (서울: 新文化社, 1974); 李命英, 『在滿 韓人共產主義運動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5).

일성(金日成)과 한자표기가 다른 김일성(金日星) 또는 김일성(金一星) 등의 이름은 당시 만주별판에서 여러 사람들이 변명할 때 선호했던 이름들이었다. 적어도 소련군에 입대할 당시 그의 이름이 진치첸(김일성의 중국식 발음을 러시아어로 표기)이었다는 소련군의 기록이 남아 있다.<sup>34)</sup> 따라서 반공주의에 의해 맹목적으로 지지되었던 ‘가짜 김일성’론은 후속 연구물들과 반-반공주의적 비판들에 의해 그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sup>35)</sup>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항일투쟁에 종사했는가 하는 점이다. 김일성이 소련군복을 입고 복무했던 소련군 88여단의 부여단장이었던 세료진의 눈에 비친 김일성은 “진정한 군장교이며 진정한 레닌주의자”였다.<sup>36)</sup> 중국공산당 휘하의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에 이어서 소련의 제88독립보

34) 러시아중앙문서국 보존 육군 대위 이력서. 제2극동군 제88보병여단 제1보병대대 대대장. 가브릴 코로트코프, 『스탈린과 김일성』, 어건주 역 (서울: 東亞日報社, 1992), I: 172. 가브릴 코로트코프(Гаврил Коротков)는 1925년 크라스노야르스크시에서 출생하여 소련군에 입대한 후 1950년 6.25전쟁 개전 직전 소련극동군사령부 참모부 정보분석관으로 전쟁계획수립에 관여했다. 1980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 국방부 전사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35) 김일성에 관한 연구자들의 시각적 차이에 대한 비교적 고찰로서는 김명섭, 『해방 전후 북한현대사의 쟁점』, 『解放前後史의 認識VI: 쟁점과 과제』 (서울: 한길사, 1989): 125-32. 또한 서대숙(徐大肅), 『김일성: 북한의 지도자』 (서울: 청계연구소, 1989); 이재화,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서울: 백산서당, 1988); 『북한해방직후 極秘 자료: 조선공산당과 김일성에 관한 문서』 (서울: 고려서림, 1998); 서대숙 편, 『북한 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3권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4);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이종석 역,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이기봉, 『人間 金日成 그의 全部』 (서울: 吉韓文化社, 1989);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김일성 자신의 회고로는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98).

36) 세료진 증언(1951년, 하바로프스크), 코로트코프, 『스탈린과 김일성』, I: 182.

병여단 제1대대장이었던 김일성은 마오쩌둥과 마찬가지로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전쟁관으로 무장했다.<sup>37)</sup> 김일성은 민족주의자였던 아버지 김형직이 사망한 1926년 화성의숙을 떠나 1927년부터 지린(吉林)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화성의숙을 지배하던 민족주의 대신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정권 수립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던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시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sup>38)</sup>

공산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와 독일 나치즘이 주도했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계급투쟁을 지향했다. 김일성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 열병식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는 “소수의 자본가와 지주들을 위하여 인민에 대한 그들의 착취를 무력으로 유지”하거나 “다른 민족과 남의 령토를 침해”하기 위한 군대이지만, 조선인민군은 “인민

37) 1941년 6월 22일 새벽 4시 독일이 소련을 향해 바바로사작전을 개시하자 소련 정부는 항일연군이 주축이 된 여단 창설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1942년 7월 16일 극동전선군 사령관 I. R. 아파나센코는 원래 2개의 야영을 해소하고, 야영이 있던 비야즈코예 나 아무르 마을에 88중조여단을 결성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 여단 편성이 완료되었고, 명칭은 88독립보병여단으로 결정되었다. 중국공산당에서는 동북항일연군 교도려, 소련공산당에서는 국제 홍군 제88특별여단이라고도 불렀다. 당시 전체 대원의 숫자는 600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조선인은 150여 명이였다. 정병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56: 광복 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천안: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년 4월). 제3장 국외 독립운동의 동향, 3. 소련·일본 내 동향, 1. 재소무장부대; 이덕일, “연해주의 소련 극동적군 88여단의 결성배경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6 (1997);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 1920-1945』 (서울: 아시아문화사, 1999); 기광서,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 현실』 28 (1998). 김일성의 집권과정과 소련의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60*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김국후, 『비록 평양의 소련군정: 기록과 증언으로 본 북한정권 탄생비화』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8).

38)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 2장 잊을 수 없는 화전, 3장 길림시절.



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을 사수”하는 방어자라고 정의했다.<sup>39)</sup>

셋째, 1950년 6월 25일 조선인민군의 전면남침이 시작된 직후의 상황과 관련해서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학살과 인민재판 등은 부각되었던 반면 교전 쌍방의 반대편에서 이루어진 비극적 사건들은 반공주의라는 도그마에 갇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었다.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민보도연맹이란 1949년 주로 좌익 전향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던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관련자, 남로당원,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등 남로당 외곽 단체 구성원들이 주된 가입대상이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조선인민군의 서울점령 이후 서대문형무소 및 마포형무소 수감자들이 대거 적진에 가담하는 것을 목도한 이후 국민보도연맹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좌익전력이 있던 인사들에 대한 인권유린, 심지어 학살명단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단체처럼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낙동강방어선까지 밀리는 동안 교전선 이남에서 국민보도연맹 명단이 참혹한 학살에 악용되었다. 이 사건의 진상은 오랫동안 반공주의적 사상체계 속에 갇혀 은폐되었다가 역사적 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sup>40)</sup>

1951년 국민방위군(國民防衛軍) 사건의 진상도 오랫동안 은폐되거나 축소되었었다.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 고위간부들이 군수물자를 착복하여 약 9만 명의 국민방위군이 아사(餓死) 및 동사(凍死)하게 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국민방위

39) 김일성, “조선인민군 창건에 즈음하여(1948. 2. 8),” 서대숙 편, 『북한문화연구 문헌과 해제: 제Ⅳ권 대외관계 군사 및 안보』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252-253쪽.

40) 국민보도연맹의 창설 경위, 그리고 6.25전쟁 발발 이후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참상에 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137-75쪽; 김선호, 「국민보도연맹, 과연 전향자단체인가」,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분과 편,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10), 537-68쪽.

군 사령관 김윤근(金潤根), 부사령관 윤익헌(尹益憲) 이하 5명에 대한 총살형이 8월 12일에 집행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국민방위군 희생자 개개인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sup>41)</sup>

6.25전쟁 중의 거창양민학살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1.4후퇴 직후였던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神院面)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후방의 빨치산과 대결하던 11사단(사단장 최덕신 준장)<sup>42)</sup> 9연대 3대대는 중공군과 함께 다시 남하하던 조선인민군과 연계된 빨치산 토벌작전 중이던 2월 10일 내탄(內呑) 부락 골짜기에서 136명, 2월 11일 박산(朴山)계곡에서 527명을 중화기로 살해했다. 유사한 사건들이 인근의 함양, 산청, 문경, 함평 등에서 발생했다. 국회 진상조사단 파견에 위기감을 느낀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를 공산계릴라로 위장하여 위협적 총격을 가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반공주의를 진실은폐에 오용한 대표적 사례였다. 이 사건으로 김준연 법무장관, 조병옥 내무장관, 신성모 국방장관 등이 사퇴했고, 이후 조병옥이 이승만의 정적이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지체되면서 무고한 희생자들의 이중적 피해가 발생했다.<sup>43)</sup>

41) 국민방위군 사건에 관해서는 김세중, 「국민방위군사건」, 유영익 외, 『한국과 6.25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남정옥, 『6.25전쟁 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박환, 「국민방위군 연구: 유정수 일기를 중심으로」, 『전쟁과 유물』 제6호 (2015). 국민방위병에게 배급이 예정된 식량은 4흡으로 전쟁포로들보다도 적은 양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V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62쪽.

42) 최덕신은 이후 베트남대사, 외무부장관, 서독대사 등을 역임한 후 월북하여 평양의 애국열사능에 묻혔다.

43) 한인섭,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257-259쪽.

전반적으로 반공주의적 기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6.25전쟁 당시 발생했던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을 은폐할 뿐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규명하는데 소홀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의 선행성(先行性)과 잔혹성을 소상히 규명하고, 기록하는 학문적 작업도 미흡했다.

넷째, 한국군 내부 일본군 경력자들에 대한 진실도 은폐되는 경향이 있었다. 1953년 정전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군이 한국의 전장에서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달했다.<sup>44)</sup> 이러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유럽의 독일처럼 일본을 재무장시켜 반공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을 증강하고, 공산군의 남침의지가 실현되는 것을 막고, 증강된 한국군이 북침의지를 갖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3중 봉쇄체제로서의 한미동맹체제가 구축되었다.<sup>45)</sup>

1.4후퇴 직후인 1951년 1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 앞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인들이 일본 군인을 한국으로 보내 싸우도록 하겠다는 소문은 한국인들을 격분시킬 것이다. 우리는 공산당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일본 군대와 싸울 결심을 할 것이다.”<sup>46)</sup>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연설을 할 당시 현장의 지휘관은 과거 일본군에서 복무했던 유승렬이었다. 유승렬과 그의 아들 유재홍과 같은 일본군 출신들이 일본군에서 받은 체계적인 군사훈련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6.25전쟁에서 세운 전공(戰功)과 그들의 일본군 경력(經歷)은 모두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44) Rhee to Mark W. Clark (Command-in-Chief, UNC), 30 Apr 1953, 『대한민국사자료집: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5(1953)』.

45) 김명섭, 『전쟁과 평화』, 758쪽.

46) 프란체스카 도너 리(Francesca Donner Rhee), 조혜자 역, 『6.25와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서울: 기파랑, 2010), 381쪽.

아울러 일본군의 참전은 이승만 대통령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 실행되지 못했지만, 6.25전쟁 당시 일본이 후방기지로서 수행했던 역할 또한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sup>47)</sup> 일본군 경력자들과 달리 항일운동 경력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이 6.25전쟁에서 수행했던 역할도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sup>48)</sup> 냉전시기 똑같이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베트남의 남쪽(South Vietnam)에 비해 코리아의 남쪽(South Korea)에서 반제국주의 독립운동 경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반공적 역할이 컸다는 점이 두 국가의 다른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sup>49)</sup>

다섯째,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서술이 미화(美化) 일변도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흡수, 소멸될 뻔 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하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역할은 전쟁 이전 대한민국의 수립과정이나 전후 복구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sup>5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에

47) Howard B. Schonberger, *Aftermath of War: Americans and the Remaking of Japan, 1945-1952* (Kent, Ohio/ London, England: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89); 인천상륙작전 당시 일본의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에 관해서는 김명섭, 『전쟁과 평화』, 142쪽; 이러한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에 따라 일본이 6.25전쟁 시기 기지국가로 재탄생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48) 김명섭, 김주희, 「20세기 초 동북아 반일(反日) 민족지도자의 반공: 이승만과 장개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집 2호 (2013); 한시준, 「이범석, 대한민국 국군의 초석을 마련하다,」 『한국사 시민강좌』 제43집 (2008.8), 122-134쪽; 이동원,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軍史』 제99호 (2016년 6월), 223-256쪽.

49) Myongsob Kim, “The Global Significance of the War in Korea (1950-53): Focusing on Korean ‘Anti-Imperial Anti-Communism’,”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주최 6·25전쟁 6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6·25전쟁으로부터 글로벌 코리아까지』 2010년 6월 23일. 서울프라자호텔.

50) 대한민국의 수립 및 발전과정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해서는

입각하여 나타난 찬미(讚美)적 경향에 대한 반작용은 6.25전쟁을 베트남전쟁과 동일선상에서 보는 미국학계의 좌우편향이 무비판적 수용으로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학계에 대한 무분별한 의존은 6.25전쟁의 진실탐구에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 그것은 마치 민족주의적 관념에 입각해서 한국의 역할을 과장, 미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진실을 가리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

Gregg Brazinsky,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 4. 반-반공주의적 해석의 도전과 역편향

6.25전쟁에 대한 반공주의적 관점의 한계에 대응해서, 그리고 반공이 독재를 위해 오용되기도 했던 시기에 지식인 운동 차원에서 반-반공주의적 관념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관념에 기초해서 ‘통일을 위한 역사’<sup>51)</sup>를 내건 6.25전쟁 해석이 확산되었다. 공산주의적 관점이 6.25전쟁에 대한 해석을 전체주의적 도그마에 가두어 놓는 것이라면, 반-반공주의적 관점은 6.25전쟁에 대한 해석을 반공주의적 도그마에 가두어 놓는 것에 반대했다. 전자가 주로 조선로동당, 소련(러시아)공산당, 그리고 중국공산당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후자는 주로 자유진영 내부에서 견지된 ‘학문과 언론의 자유’에 입각해서 확산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언론인이었던 I. F. 스톤(I. F. Stone, 본명: Isidor Feinstein)은 1950년 8월부터 1951년 중순까지 파리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 주로 집필한 원고를 토대로 1952년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51*라는 책을 출간했다.<sup>52)</sup> 당시 파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반공주의자는 개”라고 주장했던 사르트르의 주장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러한 파리의 지적 분위기 속에서 집필된 글들에서 스톤은 38선 이남이 이북을 자극함으로써 반격전의 형태로 전쟁이 발발했고, 코리아의 통일을 위한 전쟁

51) 대표적으로 강만길은 해방 후의 현대사를 통일민족국가 시대의 전사(前史)로 보고, 그 이름 또한 ‘분단시대’ 혹은 ‘통일운동시대’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강만길, 「분단시대 사학의 성격」,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서울: 창작과비평사, 1978), 15쪽.

52) I. F. Stone,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52). 이 책의 1988년 판본에는 브루스 커밍스가 쓴 서문이 실려 있다. 굵타의 책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1980년대 신학문사라는 출판사를 통해 한국어로 출간되었다. I.F. 스톤, 백외경 역, 『秘史 한국전쟁』(서울: 신학문사, 1988).

사유(casus belli)를 남쪽이 제공했다고 말하면서 6.25남침을 정당화했다. 스톤은 이 책의 서문에서 “소설을 쓰듯이 이 책을 쓴다”고 했지만, 그러한 ‘소설’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독자들을 현혹시켰다. 스톤의 글에는 ‘아르카나 임페리’(Arcana Imperii, 제국의 기밀)를 파헤치고자 했던 언론인으로서의 비판정신은 충분했으나 자기비판에 기초한 학문적 중립성과 객관성은 결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들이 미국 학계에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1964년 미국의 버클리대학에서 시작된 자유언론운동(Freedom of Speech Movement), 그리고 베트남전쟁에 맞서 1969년부터 본격화된 반전운동의 영향이 컸다. 특히, 6.25전쟁 북침론과 같은 해석에 비해 내전확대론은 대안적 해석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내전확대론의 맹아는 아직 중국공산당이 공식적으로는 북침론을 주장하고 있던 1950년 6월 27일자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민일보』는 6.25북침설을 주장하는 동시에 “조선의 전면적인 내전은 이미 [1950년 6월 25일 이전] 시작되었다”는 내전확대론을 주장했던 것이다.<sup>53)</sup>

냉전시기 서구학계 일각에서 냉전과 6.25전쟁에 대한 반-반공주의적 해석이 인기를 끌었다. 1972년에 출간된 책에서 조이스 콜코와 가브리엘 콜코는 6.25전쟁이 소련이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의 북진을 두려워한 북한의 ‘방어적 선제공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전개했다.<sup>54)</sup> 이러한 콜코 부부의 6.25전쟁 해석은 베트남전쟁으로 인

53) “朝鮮人民爲擊退進犯者而奮鬪,” 『人民日報』, 1950년 6월 27일.

54) Joyce Kolko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pp.572-573. 가브리엘 콜코는 하버드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재직하다가, 이 대학이 베트남전쟁에서 사용되는 고엽제 연구비를 수수한 것에 반발하다가 1970년 캐나다로 이주하여 프랑스 68혁

한 반전 분위기 속에서 각광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 박사과정생이었던 윌리엄 스투크에 의해 조목조목 반박되었다.<sup>55)</sup>

1975년 북베트남에 의해 베트남공산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쓰라린 외교적 패배를 당하던 분위기 속에서 출간된 책에서 로버트 시몬스는 6.25전쟁을 여전히 내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불개입이 더 환영할 만한 결과들을 낳았을 것”이라는 요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코리아내전 개입은 미국과 코리아반도 모두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했다. 신속하게 끝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피를 덜 흘릴 수 있었던 재통일이 대량학살로 바뀌었다. [중략] 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불개입이 다음과 같은 더 환영할 만한 결과들을 낳았을 것이다. 첫째, 중국내전은 대만의 해방으로 끝났을 것이다. 워싱턴과 베이징은 중국이 소련과 동맹을 맺는 것을 회피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의 코리아내전 개입으로 인해 강화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동일시를 회피하면서 인도차이나 모험(Indochina adventure)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sup>56)</sup>

시몬스의 책이 출간된 지 30년 후인 2005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한국 학자가 인터넷 칼럼을 통해 유사한 6.25전쟁 해석을 제기하여 큰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sup>57)</sup>

명의 영향을 받은 요크대학의 교수가 된 지성사적 궤적을 가지고 있었다.

55) William Stueck, “Cold War Revisionism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Conflict: The Kolko Thesis,”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42, no. 4 (1973), pp. 537-60; 스투크의 연구사적 의미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옥창준, 「윌리엄 스투크의 국제적 접근법과 한국전쟁 연구」, 『美國學』제39권 1호 (2016년 6월), 37-71쪽.

56) Robert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ong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pp.241-42.

57) 강정구,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 당시 이 칼럼이 사회적 논란을 빚자 저자는 2005년 8월 2일 자신의 간단한 소회



미국학계에서 시몬스가 주장했던 내전론은 브루스 커밍스에 의해 계승되었다. 커밍스는 6.25전쟁이 원래 ‘내전’이었고,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장미전쟁(War of the Roses)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sup>58)</sup>

시몬스와 더불어 커밍스에게 영향을 미친 또 한 명의 인물은 존 헬리데이였다. 헬리데이는 1970년대에 *The Psychology of Gambling* (Allen Lane 1974) (ed. with Peter Fuller), *A Political History of Japanese Capitalism* (Monthly Review 1975) 등의 책을 출간했고, 1978년에 쓴 논문에서는 “1945년 9월에 미국이 코리아를 침략했다”(The US, in effect, invaded Korea in September 1945)는 기이한 주장을 개진한 바 있었다.<sup>59)</sup> 1986년에는 알바니아의 공산독재자 엔베르 호자의 회고록을 공동집필했고<sup>60)</sup>, 1988년 브루스 커밍스와 함께 6.25전쟁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sup>61)</sup>

이 책에서 헬리데이와 커밍스는 1950년 6.25전쟁은 1949년 여름 38선 상에서 있었던 수 차례의 접전과 게릴라전이 확대된 것이라는

---

와 함께 칼럼전문을 향린교회 게시판에 다시 게재하였다.

<http://www.hyanglin.org/bbs/23720> (검색일: 2016년 8월 15일).

58)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W. Norton, 2005[1997]), p. 298.

59) 헬리데이의 주장처럼 미군은 코리아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코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제국을 공격하여 코리아를 해방시킨 것이다. Jon Halliday, “Observations on the Presentation and Perception in the West of the Korean People’s Struggles,” in *Korea, North and South: The Deepening Crisis*, rev. and expanded version of *Crisis in Korea*, ed. by Gavan McCormack and Mark Selden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p. 210.

60) Jon Halliday, *The Artful Albanian: The Memoirs of Enver Hoxha* (Chatto & Windus 1986).

61) Jon Halliday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Pantheon, 1988).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브루스 커밍스·존 할리데이 지음, 차성수·양동주 옮김,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서울: 태암, 1989).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될 당시 헬리데이는 한국을 방문하여 대담록을 남겼다. 존 할리데이, 「한국의 분단-전쟁, 누구의 책임인가?」, 『역사비평』 (1989), 293-307쪽.

내전확대설을 개진했다. 이 책에서 헬리데이와 커밍스는 김일성뿐만 아니라 이승만도 전쟁을 원했고, “이승만은 종종 주인이 줄을 잡고 있는데도 목걸이에 걸려 거의 질식할 정도로 뛰어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냥개처럼 보였다”는 식으로 묘사했다.<sup>62)</sup>

그런데 커밍스와 공저하기 직전인 1986년 헬리데이는 장웅과 함께 송경령 전기를 공저했었다.<sup>63)</sup> 그리고 2005년에는 다시 장웅이 제1저자로 집필한 마오쩌둥 전기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책에 따르면 20세기 최대의 대량학살자는 히틀러나 스탈린이 아니라 마오쩌둥이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마오는 “평화시에 약 7천만에 달하는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sup>64)</sup> 이처럼 마오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장웅과 헬리데이는 “왜 마오와 스탈린이 코리아전쟁을 시작했는가?”(Why Mao and Stalin Started the Korean War)<sup>65)</sup>, “마오쩌둥이 코리아전쟁을 통해 어떤 이익을 썩

62) Jon Halliday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London: Viking; New York: Penguin, 1988); 브루스 커밍스 · 존 할리데이, 차성수 · 양동주 역,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서울: 태암, 1989), 36쪽.

63) Jung Chang and Jon Halliday, *Madame Sun Yat-sen: Soong Ching-ling* (London: Penguin, 1986). 장웅은 이 책을 쓴 이후 Wild Swans이라는 책을 단독으로 출간했고, 1천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Jung Chang, *Wild Swans: Three Daughters of China* (London: Simon & Schuster, 1991).

64) Jung Chang and Jon Halliday, *Mao: The Unknown 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2005), 3.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장웅, 존 헬리데이, 『마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상, 하. 황의방, 이상근 외 옮김 (서울: 까치, 2006). 마오쩌둥의 주치의도 마오의 신화를 벗기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Li Zhisui, *The Private Life of Chairman Mao* (New York: Random House, 1994). 네덜란드 출신의 홍콩대학 석좌교수 프랑크 디키퍼가 중국공산당 문서들을 활용하여 쓴 일련의 저작들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Frank Dikötter, *Mao's Great Famine: The History of China's Most Devastating Catastrophe, 1958-1962* (London: Bloomsbury, 2010); *The Tragedy of Liberation: A History of the Chinese Revolution 1945-1957* (London: Bloomsbury, 2013); *The Cultural Revolution: A People's History, 1962-1976* (London: Bloomsbury, 2016).

65) Chang and Jon Halliday, *Mao*, pp. 356-364.

냈는가(milk)”<sup>66)</sup>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당시 마오쩌둥이 가지고 있던 속셈을 냉철히 분석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헬리데이는 1988년 자신이 커밍스와 함께 출간했던 6.25전쟁 관련 저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헬리데이가 이처럼 자신의 종전 입장을 바꾸게 된 데는 장용의 영향이 컸다고 보여진다. 장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쓰촨 성 이빈 시에서 1952년에 태어나, 문화대혁명의 광란을 겪고 1978년 가까스로 유학을 떠나 중화인민공화국 출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가 직접 체험한 중국공산당 치하에서의 현실경험이 동아시아의 현실과는 유리된 채 무리한 주장을 개진했던 아일랜드 출신 영국 좌파 지식인인 헬리데이의 입장을 변화시켰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헬리데이의 관념사적 궤적은 반공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진실을 추구했으나 반-반공주의의 뒷에 걸린 연구자들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과거 헬리데이가 견지했던 반-반공주의적 해석은 반공주의적 도그마에 대한 극복을 앞세우면서 반공주의를 명목으로 자행된 폭력에는 주목하면서도 공산주의에 의해 추동된 폭력에는 경시하는 경향성에 빠져 있었다. 반-반공주의적 경향의 6.25전쟁 연구는 반공주의를 극복해야 6.25전쟁의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처럼 주장했지만, 국제공산주의의 결정적 역할은 간과했다.

반-반공주의적 해석은 반공주의에 대한 공격에 치중한 나머지 그 자체가 하나의 ‘주의(主義, 도그마)’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자유진영에서 공개된 사료에 나타난 자유진영의 잘못을 들추어 전쟁의 성격 전체를 규정했다.<sup>67)</sup> 그 결과 자유진영 내부의 ‘반공좌파’<sup>68)</sup>까지도 견지했던 ‘사상으로서의 반공’이 지녔던 역사적

66) Chang and Jon Halliday, *Mao*, pp. 365-379.

67) 앞서 언급한 쉬쩌룽(徐澤榮, David Tsui)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중국공산당의 사료통제는 엄격하다. 소련군 총참모부 정보총국(GRU)자료를 포함한 구 소련의 사료공개도 여전히 미흡하다.

의미를 무조건 배격하고, 반공주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그마가 되어 반공주의적 관점의 해석이 지니는 한계에 앞서 존재했던 공산주의적 관점의 해석이 지니는 허구성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거나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한국 학계에서 6.25전쟁에 대한 반-반공주의적 해석은 냉전종식 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의 약화와 더불어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1992년 중화민국(이후 대만)과의 단교 및 중화인민공화국 및 베트남인민공화국과의 수교과정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나 베트남공산당 사관이 그대로 접맥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반공주의적 해석에서는 6.25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결론내림으로써 ‘공산주의에 의해 추동된 조선인민군의 무력남침’이라는 진실의 이면을 민족주의적으로 축소해석하거나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6.25전쟁 쌍방책임론이나 양비론, 그리고 ‘역사적 진실에 대한 망각을 통한 화해’를 내세우는 정치적 해석과 이벤트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5. 결론: 정치적 양가주망에서 학문적 데가주망으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된 6.25전쟁은 국제공산주의적 연대에 기초해서 시작된 전쟁이었다. 인민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던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간의 대결이 지속되던 냉전시기 이 전쟁에 관한 해석은 진영적 대립구도에 의해 구속되었다.

6.25전쟁은 1917년 러시아에서 케렌스키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볼

68) 좌파이면서도 ‘반공’의 입장을 견지했던 프랑스사회당의 노선 등으로 대표되면, 조지 오웰(George Orwell, 본명 Eric Arthur Blair, 1903-1950)과 같은 이론가도 이에 해당된다.

세비키의 집권 이후 유라시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던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의 간 관념충돌의 축소판(microcosm)이었다. 이러한 관념충돌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과 일본의 우익전체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는 과정에서 잠복하기도 했으나 1945년 공동의 적이 사라짐에 따라 미-소 양 진영 간의 냉전으로 표출되었다.

국제적으로 거대한 두 마리 코끼리들 간의 대결이었던 미-소 양 진영 간의 냉전이 각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을 표방했던 두 국가체제 간의 열전으로 분출했던 것이 6.25전쟁이었다. 이러한 전체상을 보지 않고, 특정한 사실만을 부각시켜 전쟁 전체의 성격을 재단하게 되면 마치 눈을 가린 채 코끼리의 꼬리만을 만지면서 뱀과 같다고 오인하는 것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6.25전쟁 연구자들은 전쟁 속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념적 진영 속에서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경우와 같이 뒷에 걸리기 쉬운 정치적 앙가주망(engagement, 참여)의 상태에 있었다.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자료접근의 불균형성은 교전쌍방의 자료들을 균형있게 보아야 하는 전쟁사에 있어서 불균형적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론에서 인용한 “전쟁의 최초 사상자는 진실”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밝히기 어려운 전쟁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교전 쌍방의 사료들에 대한 자유롭고 동등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6.25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해석보다는 나왔지만 반공주의적 해석에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반공이 독재를 위해 오용되기도 하면서 반공 자체의 가치가 폄하되고, 반공주의적 해석이 약화되는 배경이 되었다. 반공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반-반공주의적 해석은 인기를 끌었고, 반공주의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6.25전쟁의 진실에 대한 공산주의적 왜곡과 은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6.25전쟁 책임에 대해 기계적 양비론에 빠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6.25전쟁 연구는 공산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반-반공주의에 입각한 해석들에서처럼 역사와 정치를 접합(attach)하기보다 역사와 정치를 분리(detach)하려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역사정치학적 냉철함이 요구된다. 정치와 역사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밀월에서 벗어난 정책적 파탄에 직면하면서 점차 역사로서의 6.25전쟁에 대한 정치적 양가주망(engagement, 참여)을 넘어 학문적 데가주망(dégagement, 초연)이 요구되고 있다.

[원고투고일: 2016.8.30, 심사수정일: 2016.9.11, 게재확정일: 2016.9.12.]

주제어 : 6.25전쟁, 한국전쟁, 조선전쟁, 공산주의전쟁, 공산주의, 반공주의, 반-반공주의

&lt;ABSTRACT&gt;

## Wa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War in Korea(1950 - 53): A Review Focusing on the Clash of Ideas

Kim, Myong-sob

This historiographic article aims at a review of the “war of interpretation” on the War in Korea from 1950 to 1953 focusing on the ideas upon which have been based various interpretations, i.e., Communism, Anti-Communism, and Anti-Anti-Communism. Consequently, this article attempts to replace the usual categorization of “traditionalism versus revisionism,” which had been developed for the Cold War historiography mainly in the American academic community. This in-depth review leads us to conclude that a more academic detachment is necessary in this war studies. From the time that the war began in Korea in June 1950 by the international Communist leaders to the present, the interpretation of the war has been in the state of political *engagement*. However, it is now the time for the political *dégagement* for historicizing rather than politicizing the war in Korea from 1950 to 1953. Historico-politics is not a mere attachment of history and politics but is an incessant academic effort to detach the two.

Key words : Keywords: the 6.25 War, the Korean War, the Communist War in Korea(1950-53), Communism, Anti-Communism, Anti-Anti-Communism

